

北宋 刻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추이

劉 薔*

I. 연구 의의와 회고
II. 연구방법과 기초조사

III. 연구내용과 기본 구성

• 국문초록

국내외에 산발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北宋 刻本은 중국 조판 인쇄의 초기 실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자 문명 전승의 중요한 일환으로 대표적인 진귀한 문헌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북송 각본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학술적 가치를 심도 있게 연구 하는 것은 중국 인쇄사, 나아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인쇄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송은 중국 版刻史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북송본은 그 수량이 적고 국내외에 산발적으로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어렵고 기존의 연구도 결론적인 관점을 거의 도출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북송 초기의 인쇄본, 특히 單刻佛經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북송 판본의 특징을 더 많이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었다. 또한 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결부하여 전면적이고도 적절하게 송나라 판각의 규칙성과 학술적 가치를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일정한 타당성은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북송, 간본, 판본학, 선본

* 清華大學 科技史暨古文獻研究所

I. 연구 의의와 회고

중국 조판 인쇄술은 唐나라 시기 시작되었고 五代 시대에 형성, 兩宋 시기에 흥성, 元·明·淸대까지 이어졌다. 북송은 건국 이후 오랫동안 崇文抑武 정책을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문화 사업을 발전시켰으며, 대량의 인적 자원과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國子監, 崇文院 등에서 서적을 교감하고 刊定하면서 날로 번창하였다. 諸經正義, 字書, 史書, 醫書와 비교적 큰 卷帙의 類書, 소설, 詩文總集과 禦製文, 法帖 등을 모두 처음으로 판목에 찍어내기 시작하였다. 조판 인쇄 수량이 급증하면서 開封에서 조판할 수 없는 監本正經과 正史류 서적들은 杭州에서 판각 인쇄되었고 민간 書坊에서도 조판 인쇄되었다. 正經과 정사는 줄곧 科擧의 필수품으로서 끊임없이 官本과 坊本으로 刻印되었다. 북송 사회는 안정적이었고 경제 문화가 번영하면서 국가감을 대표로 하는 官府 刻書도 한때 크게 성행하였다. 각서의 내용과 문자도 전체적으로 남송이후의 판본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교했으며 아름다웠다. 북송 私家 각서는 오대를 답습하여 대부분 관리 집안에서 나왔으며 수량 또한 많았다. 坊刻 또한 빠르게 발전하였다. 蘇軾은 일찍이 “최근 서적상들은 돌아가면서 제자백가의 책들을 번각하니 하루에 만장 넘게 전파된다(近歲市人轉相摹刻諸子百家之書, 日傳萬紙).”라고 하였다. 당시 비교적 안정되고 풍요로운 지역에는 모두 책을 간행한 기록이 있다. 東京, 汴梁, 杭州, 成都 그리고 남방의 吳越, 북방의 靑州, 심지어 외진 지역인 河西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교가 성행한 북송시기에 대량의 판각 불교 경전이 출판되었다. 북송시기에만 刊刻되거나 이 시기 처음으로 판각되었던 것은 『開寶藏』, 『崇寧藏』, 『毗盧藏』 등 세 권의 대장경이 있고, 이 밖에도 수많은 단각불경이 조판되었다. 이는 중국 불교 전적 刊刻 史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조판한 서책 중에는 版畫도 출현하는 등 조판 인쇄 기술이 당나라와 오대시기보다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송대는 조판 인쇄의 황금 시기였다. 북송은 9왕조 167년, 남송은 9왕조 1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천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현존하는 송나라 각본 중 남송 각본이 95%이상 차지하고 있다. 청나라 陸心源은 “송나라 간본은 매우 적으나 북송 간본은 마치 景星·慶雲처럼 더욱 드물다(宋刊世不多見, 北宋刊本猶如景星慶雲).”라고 하였다. 국내의 현존하고 있는 북송 각본은 매우 희귀하여 景星·鳳凰처럼 보기 힘들며 대부분 중국국가도서관, 상해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대만 고궁박물관, 일본 궁내청

쇼로부(書陵部)와 교우쇼오쿠(杏雨書屋) 그리고 신후쿠사(眞福寺) 등에 소장되어 있다. 북송 景祐 시기의 각본 『史記集解』는 일본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일본 ‘국보’로 인정하면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북송 각본에 대한 목록과 기록은 청나라부터 民國 시기의 공공 및 개인 목록과 藏書의 題跋, 題記에 산발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乾嘉 시기 官修의 『欽定天祿琳琅書目』 중 송나라 판본인 『兩漢書』, 元祐 연간 각본인 『資治通鑑』, 黃丕烈이 “진정한 북송의 정교한 판본(眞北宋精槧)”이라고 한 『說苑』과 『淮南鴻烈解』 등 서적이다. 1920년대 王國維는 저서 『五代兩宋監本考』¹⁾ 中卷에서 110여 종의 북송 監本 四部 서적의 목록 및 간각 상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趙萬裏의 「兩宋諸史監本存佚考」²⁾는 송나라 역대 간각의 정사에 대해 기초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귀납하였다. 宿白이 쓴 『唐宋時期的雕版印刷』의 「北宋汴梁雕版印刷考略」³⁾편에서는 왕국유의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 발표된 史料에 근거해 관련 자료를 다시 편집하여 폭넓게 연구하면서, 북송 汴梁의 조판 인쇄에는 관부에서 인쇄한 책뿐만 아니라 개인과 서방에서 인쇄한 책도 포함된다고 논술하였다. 「附現存釋典以外的北宋刊印書籍的考察」⁴⁾편에는 국내 외에 잔존하는 북송 雕印 서적(釋書 제외)을 총 6批 13종 기록하고 있다. 李緻忠의 「北宋版印實錄與文獻記錄」⁵⁾은 작가의 중국 서적 역사를 기록한 시리즈 중 한 편으로 仁宗 시기까지의 북송 각서 문헌기록에 대해 요약하였고 직접 확인한 판본 실물도 기록하였다. 상술한 저서 이외에도 魏隱儒의 『中國古籍印刷史』,⁶⁾ 張秀民的 『中國印刷史』,⁷⁾ 李緻忠의 『歷代刻書考述』⁸⁾ 등 인쇄사에 관한 여러 저서에서는 북송과 남송을 단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논하면서도 대부분 남송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북송 시기의 조판 인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版本學, 문헌학 역사저서들도

1) 王國維, 『五代兩宋監本考』, 國家圖書館出版社, 2018.

2) 趙萬裏,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上,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33, 『趙萬裏文集』 一卷에 수록, 國家圖書館出版社, 2011, 457~465면.

3) 宿白, 「北宋汴梁雕版印刷考略」, 『唐宋時期的雕版印刷』, 文物出版社, 1999.

4) 宿白, 「附現存釋典以外的北宋刊印書籍的考察」, 『唐宋時期的雕版印刷』, 文物出版社, 1999.

5) 李緻忠, 「北宋版印實錄與文獻記錄」, 『文獻』, 2007.

6)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印刷工業出版社, 1984.

7) 張秀民, 『中國印刷史』, 上海人民出版社, 1989.

8) 李緻忠, 『歷代刻書考述』,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인쇄사 저서와 마찬가지로 북송시기보다 남송시기의 연구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치충의 『古書版本學概論』,⁹⁾ 曹之의 『中國古籍版本學』,¹⁰⁾ 黃永年の 『古籍版本學』,¹¹⁾ 孫欽善의 『中國古文獻學』¹²⁾ 등 저서들이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은 진귀한 漢籍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대로 宋·元 판본을 중요시하고 있다. 북송 각본에 대한 일본학회의 鑑定과 연구 성과는 중국학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학자들이 오랜 기간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 판본 고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부에 주사(澀江全善)와 모리 릿시(森立之)가 공편한 『經籍訪古志』¹³⁾에는 에도(江戸)시기 일본이 소장한 송·원 판본을 포함한 한적 善本 상황이 완벽하게 서술되어 있다. 나가사와 기꾸야(長澤規矩也)의 「宋代合刻本正史之傳本」과 여러 편의 논고를 집필하였으며 송·원 판본이 있는 목록과 刻工 이름표 등을 편찬하였다. 아베 류이치(阿部隆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대만, 홍콩에서 소장하고 있는 송·원 판본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으며 각공 이름 정보를 이용해 판본 종류를 분석하여 간각 시간을 추정하여 『中國訪書志』¹⁴⁾를 저술, 「日本國見在宋元版本志」¹⁵⁾ 經部부분을 발표하였다. 오자키 야스시(尾崎康)는 다년간 아베 류이치(阿部隆一)를 따라다니면서 일본, 대만 및 중국 지역에서 현존하는 송·원 판본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중국 고전학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典籍인 정사를 연구 방향으로 잡았다. 그가 저술한 『正史宋元版研究』¹⁶⁾는 송·원 시기 각각의 체계적인 간각 정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史記』에서 『金史』에 이르기까지 21부에 달하는 현존하는 정사의 傳本 모두를 논술하였는데, 그 중에는 4종 6권에 달하는 북송 간본도 포함되어 있다. 오자키 야스시(尾崎康)의 북경대 강연을 기반으로 정리한 서적 『以正史中心的宋元版研究』¹⁷⁾ 앞부분에는 『姓解』, 『孝經』 등 여러 권의 북송

9) 李緻忠, 『古書版本學概論』,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10) 曹之, 『中國古籍版本學』, 武漢大學出版社, 2007.

11) 黃永年, 『古籍版本學』, 鳳凰出版社, 2005.

12) 孫欽善, 『中國古文獻學』, 北京大學出版社, 2006.

13) 澀江全善·森立之 共編, 班龍門·杜澤遜 點校, 『經籍訪古』, 上海古籍出版社, 2014.

14) 阿部隆一, 『中國訪書志』, 汲古書院, 1976.

15) 阿部隆一, 「日本國見在宋元版本志」, 『斯道文庫論集』18, 1981, 그 후 『阿部隆一遺稿集』1권에 수록.

16) 尾崎康 著, 喬秀岩·王鏗 편역, 『正史宋元版本志』, 中華書局, 2018.

각본 그림이 첨부되어 있고, 고려 황실의 ‘高麗國十四葉辛巳浣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元年’ ‘經筵’이라는 장서인을 통해 북송본을 판별하는 특별한 방법도 언급하고 있다.

북송 각본에 대한 판본 鑑定은 연구의 기반이 된다. 북송 각본은 연대가 오래되었고 그 내부 사정이 복잡하며 原刻, 翻刻, 補板이 섞여 있어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오자키 야스시(尾崎康)는 “옛날 각종 서목, 서지, 해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실과 어긋났다.(舊時各種書目雜誌解題之失實超出想像)”고 개탄하기도 하였다. 민국시기의 王文進과 傅增湘은 북송 판본에서 書口의 가로선이 나뉘는 방법에 주목하였다. 조만리 등의 노력을 통해 『中國版刻圖錄』과 『北京圖書館善本書目』¹⁸⁾ 등 대표 서적들에서 기술한 송·원 판본의 감정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다. 『正史宋元版本之研究』에서는 실물 조사, 판본 비교, 각공 비교와 文本 교감 등 여러 가지 감정방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북송판본을 확인하였고, 선인들의 감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보충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등 宋송원 판본 正史에 대한 감정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張麗娟의 『宋代經書注疏刊刻研究』¹⁹⁾에서는 송나라에서 간각한 경서 注疏 傳本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문헌기록과 서목 기록을 결합하여 현존하는 송나라 각본의 경서 판본 유형, 기원과 발전 그리고 각종 판본의 간각 시기와 지역 등을 규명하였다. 또한 북송 국자감에서 간각한 『九經』과 남송 그리고 후대의 번각본에 대한 감정도 아우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여러 편의 서적 중에는 북송 판본 감정과 관련된 성과도 있다. 예를 들면, 『琅函鴻寶-上海圖書館藏宋本圖錄』²⁰⁾에서는 여섯 가지 증거를 열거하여 杭州淨戒院 인쇄본 『長短經』이 북송에서 각인된 것임을 밝혔고, 「北宋刻本『結淨社集』與版本鑒定」²¹⁾과 「珍貴典籍的重大發見-北宋刊本『禮部韻略』」²²⁾은 새로 발견한 북송 각본에 관한 감정이라는 것을 고증하였다. 더욱 뜻 깊은 것은 일부 학자들은 북송본 판각 규칙에 대해 종합적 개괄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略論北宋刻本的書口特徵及其

17) 尾崎康 著, 王捷 譯, 『以正史中心的宋元版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3.

18) 북경도서관 편, 『中國版刻圖錄』, 文物出版社, 1961.

19) 張麗娟, 『宋代經書注疏刊刻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3.

20) 上海圖書館 編, 『琅函鴻寶-上海圖書館藏宋本圖錄』, 上海古籍出版社, 2010.

21) 沈乃文, 「北宋刻本『結淨社集』與版本鑒定」, 『版本目錄學研究』 9, 國家圖書館出版社, 2016.

22) 李綴忠, 「珍貴典籍的重大發見-北宋刊本『禮部韻略』」, 『文獻』, 2013.

鑑定」²³⁾에서는 현존하는 판본 실물을 정리하여 오대부터 북송시기까지 각본 서구에 魚尾를 새기지 않는 특징에 다섯 가지 판본 형식이 있다고 귀납하였다. 「宋代版刻書法研究」²⁴⁾에서는 체계적으로 송대 판각 서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書法史적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북송 각본에 대한 기본 연구는 대부분 한 종류의 문헌이나 서적에 한하여 고찰되어 四部書까지 아우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현존하는 북송본은 그 수량이 적고 국내외에 산발적으로 소장되어 있어 그 패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인 관점을 도출한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북송 초기의 인쇄본, 특히 단각불경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북송 판본의 특징을 더 많이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결합하여 전면적이고도 적합하게 그 원류와 학술 가치를 밝히고 어느 정도 일정한 타당성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

Ⅱ. 연구방법과 기초조사

북송은 중국 판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기 판각하여 인쇄된 책이 필사 형식을 대체하고 점차 유행하면서 그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었다. 裝幀 방식도 卷軸裝에서 冊葉裝을 거쳐 蝴蝶裝으로 변화하였다. 송나라 판본의 서적은 공적, 사적으로 소장된 서적 가운데 매우 숭고한 지위를 누렸다. 사람들은 송 판본을 적극적으로 감별하고 소장하였으며 특히 송 판본 서적을 소장하는 열풍이 계속 이어졌다. 중국 4대 발명 중 하나인 조판 인쇄술의 초기 발전, 유행 및 전파는 정확하게 서술되고 평가되었으나 斷代史 방식으로 북송 각서를 연구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古籍版本學은 실천성이 강한 학문이다. ‘觀風望氣’ 색채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허황된 것이 아닌 모두 실전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자 경험의 축적이다. 현재 판본학은 이미 이론을 종합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송 각본의 감정 방법에

23) 劉明, 「略論北宋刻本的書口特徵及其鑑定」, 『中國典籍與文化』, 2013.

24) 劉元堂, 「宋代版刻書法研究」, 남경예술대학 박사학위논문, 2012.

대한 종합적 개괄은 전통적인 ‘觀風望氣’를 이론적으로 승화시켰으며, 선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중요한 개념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였다. 이는 전통 판본학이 현대학술로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고적판본학의 학술체계 구축과 발전을 진일보시킬 것이다.

판본학에서 북송 각본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판본의 모습과 특징을 파악, 기본 유형을 나누어 그 분포와 변화 규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북송 각본을 남송 각본과 구별하는 감정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서적사 및 중국 인쇄사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현재 이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이 워낙 적다 보니 이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중국에서는 ‘中華古籍保護計劃’을 실시하면서 현존하는 고적에 대해 전면적이고 과학적이며 규범화된 조사와 보존 작업을 진행하였다. 북송은 중국 조판 인쇄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북송 각본은 모두 鄭僊秘籍이자 縹緗精品으로 나라의 중요한 보물이다. 현재 북송 각본은 비록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소장기관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귀하고도 특별한 소장품이 되었다. 최근 북송 각본은 경매시장에 나타날 때 마다 각광을 받고 있고 구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얻고자 한다. 현존하고 있는 북송 각본의 현황과 확실한 수량을 조사하고 북송 각본이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이 제창하고 있는 유실된 중국 전적을 되살리고 정리하는 데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 전해지는 북송 각본은 매우 드물지만 대부분 책으로 목록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불경(1960년대 이후 고고학 발견자 포함)을 포함한 북송 각본 37종 70부를 기록한 『中國古籍善本書目』,²⁵⁾ 일본과 대만지역의 송·원 판본인 『日藏漢籍善本目錄』, 『臺灣公藏宋元本聯合書目』 등 서목들은 확인해 볼만하다. 정확하진 않아도 그 대략적인 흔적을 점차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발견되어 경매 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한 북송 각본들로, 2013년 江西省에서 발견되고 남경도서관에서 購藏한 『禮部韻略』, 2015년 한국에서 환류된 『西湖昭慶寺結淨社集』 등이 있다. 이렇게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고적, 불경 그리고 고고학에서 발견된 북송 각본의 판본 수량은

25) 中國古籍善本書目編委會, 『中國古籍善本書目』, 上海古籍出版社, 1986~1997.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출판된 『中華再造善本』,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그리고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진품 도록의 출판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版式과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하여, 원본을 가져다 읽을 수 없을 경우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미 다섯 차례 발표된 『國家珍貴古籍名錄』에는 총 111부에 달하는 북송 각본이 기재돼 있다. 상술한 출판물들은 모두 북송 각본을 조사하고 심도 있고 전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Ⅲ. 연구내용과 기본 구성

현재 북송 각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점과 공백이 많다. 예를 들면, 북송시기에는 변량, 항주, 성도 외에 책을 조판한 다른 구체적인 지역이 존재하는가? 문헌상 북송시기 개인들이 校輯하고 간각했다고 기재된 문집은 실물이 전해 내려오는가? 북송 각본의 정확한 표준은 무엇이고 시기별, 지역별 북송각본의 ‘전형적인 표준본’의 특징은 무엇이며, 북송 관각본과 방각본의 판본 차이는 무엇인가? 남송 紹興초 覆刻北宋本の 규모, 품종, 수량 및 북각본과 원각저본 사이에 어떤 판각규칙을 따르는가? 북송 원본을 감정하는데 어떤 참고할만한 의미가 있는가? 북송 시기 판화 성과는 무엇이며, 이미 조판 인쇄가 유행하였는데 왜 嘉慶 6년에 石經을 간각하였는가? 북송 관각본의 글자 사용표준은 무엇이고, 북송 監本, 蜀本, 浙本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각본 글씨체와 판식은 무엇이며, 문헌 속 북송 판각 書手들은 누구였는가? 북송 각본 실물 상 각공 상황과 지역별 각공들은 어떤 이동 흐름을 보였는가? 북송본과 남송본은 판각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인들은 북송 각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청나라 장서가들이 말한 소위 ‘북송 小字本’이 정말 선인들이 “거의 전체가 남송 항주의 감본과 기타 관각본”라고 한 것이 맞는가? 청나라 건륭시기 이후 공공 및 개인 목록과 장서의 題跋, 藏書志에 기록된 ‘북송본’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북송 각본인가? 이러한 귀중본이 현재 존재하는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등 문제들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외 어디에도 북송 각본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서적이 없고 현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

한 적이 없다. 또한 대부분 상세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이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설들이 많으며, 학계에서 송·원 시기 판서 연구가 성황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송 각본의 학술적 지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현재 북송 각본은 불경 이외에 30부 정도 남아있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중국에 13부(국가도서관 8부, 북경대학도서관 2부, 상해도서관 1부, 남경도서관 1부, 민간 1부), 일본 14부(일본 궁내청 쇼로부 3부, 신후쿠사 4부, 국회도서관 1부, 교우쇼우코 1부, 교토국립박물관 1부, 존경각문고 1부, 정가당문고 1부, 오차노미즈 도서관 1부, 교토 동복사 1부), 대만지역 2부(타이베이 고궁 1부,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부사년도서관 1부), 러시아 2부(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분소 2부), 독일 2부(베를린 프로이센 학사원 1부, 독일국가도서관 1부)가 있다. 불경은 『대장경』 몇 부와 그 零種本 외에도 여러 차례의 고고학 연구에서 발견된 북송 각본이 있다. 예를 들면 燉煌 藏經洞에서 발견된 북송 각본 『切韻』 낱장, 태평흥국 5년에 간기한 『大隨求陀羅尼經咒』, 吐魯蕃吐 峪溝에서 출토된 북송 각본 『龍龕手鑑』 낱장, 黑水城에서 출토된 북송 각본 『呂觀文進莊子義』 낱장과 『初學記』 낱장, 蘇州 瑞光塔에서 발견한 鹹豐 4년과 景德 2년에 간행된 『大隨求陀羅尼經』 각 한 장, 溫州 慧光塔과 白象塔에서 발견한 송나라 明道 2년 호직胡則 각본인 『大悲心陀羅尼經』, 山東省 莘縣 宋塔에서 출토된 慶曆 2년 迄熙寧 2년 杭州 晏家와 항주 錢家에서 인쇄한 『妙法蓮華經』, 浙江省 麗水 碧湖 宋塔에서 발견된 政和 6년에 錢塘 張衍의 각본인 『佛說觀世音經』 등이 있다.

필자는 국가연구프로젝트 과제 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존하는 북송 각본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문헌에 기재한 내용과 판본 실물을 결합하여 북송 각본의 판각 규칙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북송 각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상편은 총론으로 하여 먼저 시대 순서에 따라 북송 조판 인쇄 역사를 논하고 북송 9대를 초기(太祖·太宗·眞宗), 중기(仁宗·英宗·神宗·哲宗), 말기(徽宗·欽宗)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정치적 수요, 경제 상황, 역사 문헌에 기재된 공·사 인쇄 기관과 인쇄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인쇄한 도서 종류와 특징을 하나하나 상세히 서술하거나 도표로 열거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인쇄를 진행한 지역과 각 지역의 전후 변화, 판각·사각·방각의

발전을 나누어 서술하고 역사 연구 자료와 역대 도서목록 기록으로 서로 검증하고 북송 간행 장소를 고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북송 각본에 대해 감정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북송 각본의 각각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쇄 시간에 대해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판본 항목 목록에서도 가장 세밀하게 시대(북송 초기, 북송 전기, 북송 중기, 북송 후반기, 북송 말년)와 각각 지역(변량 간본, 절강 간본, 북방 간본, 촉 간본)을 나누고 간본과 간본의 관계(북각본, 遞修本, 후인본, 남송 초년 번각본, 남송 번각본, 후대 번각 북송본)와 行格, 글자체 차이(북송 간본 소자본, 북송말 남송전기 蜀刊 大字本)를 서술하고자 한다. 같은 판본의 서로 다른 인쇄본에 대해서도 비교 감을 통해 補板 상황과 인쇄 시간을 나누려고 한다. 글자체, 판식, 각공, 종이와 목 등 특징과 규칙을 비교하여 감정방법을 귀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북송 각본의 문헌적 가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국자감에서는 여러 경전과 역사서를 조판하기 전 반복적인 교감을 거쳤기에 북송 감본의 원본은 정교하고 완벽하다. 남송 초기에 북송 판본을 복각하고 그 후 송·원·명에서 다시 번각하였기에 전해져 내려온 북송 판본의 정교하고 뛰어난 원본은 독특한 북송판 체계를 형성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로 각 판본의 격식과 文本을 비교하고 문자 교감을 통해 판본 관계를 고찰하여 북송 각본의 문헌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이 상편의 전반적인 연구 내용이다.

하편은 해제로서 현존하는 북송 각본을 部를 단위로 하고 경사자집 순서로 하여 상세하게 서지를 기록하고 판본을 조사 변증하고자 한다. 각 판본의 行款과 판식, 卷端과 題署, 存卷과 缺葉, 原版과 補板, 牌名과 銜名, 각공과 避諱, 裝帖과 크기, 鈐印과 제발, 현재 소장 기관 등을 모두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여, 책 한권을 뽑으면 그 책의 형태가 눈앞에 그려지도록 하고자 한다. 책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 기록을 정리하고 선현과 당대의 유명한 분들의 성과를 폭넓게 수집하며 판본 또는 고증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상세히 기록하여 刊印者와 각각 시기 및 각각 장소에 대해 최대한 고증을 거쳐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책의 말미에서는 서명, 인명, 각공 색인을 첨부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송 각본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으며 해외 소장본이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불경 부분에서 金藏과 『대장경』 零種本, 단각불경의 수가 방대하고 도서관, 박물관, 사원, 개인 등 소장 기관도 다양하여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서적들은 모두 진귀하여 일반인이 접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구체적이

고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했다. 필자는 문헌학 관점에서 조사하고 직접 확인하고 고증하여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모호했던 북송 각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추후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劉 明, 「略論北宋刻本的書口特徵及其鑑定」, 『中國典籍與文化』, 2013
- 劉元堂, 「宋代版刻書法研究」, 南京藝術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 尾崎康 著, 王捷 譯, 『以正史中心的宋元版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3
- 尾崎康 著, 喬秀岩·王鏗 譯, 『正史宋元版本志』, 中華書局, 2018
- 北京圖書館 編, 『中國版刻圖錄』, 文物出版社, 1961
- 澠江全善·森立之 共編, 班龍門·杜澤遜 點校, 『經籍訪古』, 上海古籍出版社, 2014
- 上海圖書館 編, 『琅函鴻寶-上海圖書館藏宋本圖錄』, 上海古籍出版社, 2010
- 孫欽善, 『中國古文學』, 北京大學出版社, 2006
- 宿 白, 「北宋汴梁雕版印刷考略」, 『唐宋時期的雕版印刷』, 文物出版社, 1999
- _____, 「附現存釋典以外的北宋刊印書籍的考察」, 『唐宋時期的雕版印刷』, 文物出版社, 1999
- 沈乃文, 「北宋刻本『結淨社集』與版本鑒定」, 『版本目錄學研究』 9, 國家圖書館出版社, 2016
- 阿部隆一, 『中國訪書志』, 汲古書院, 1976
- _____, 「日本國見在宋元版本志」, 『斯道文庫論集』 18, 1981
-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印刷工業出版社, 1984
- 王國維, 『五代兩宋監本考』, 國家圖書館出版社, 2018
- 李緻忠, 『歷代刻書考述』,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 _____, 『古書版本學概論』,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 _____, 「北宋版印實錄與文獻記錄」, 『文獻』, 2007
- _____, 「珍貴典籍的重大發見 - 北宋刊本『禮部韻略』」, 『文獻』, 2013
- 張麗娟, 『宋代經書注疏刊刻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3
- 張秀民, 『中國印刷史』, 上海人民出版社, 1989
- 趙萬裏,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上,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33
- 曹 之, 『中國古籍版本學』, 武漢大學出版社, 2007
- 中國古籍善本書目編委會, 『中國古籍善本書目』, 上海古籍出版社, 1986~1997
- 黃永年, 『古籍版本學』, 鳳凰出版社, 2005

A Discussion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the Block-prints in Northern Song Dynasty

Liu, Qiang

The Northern Song Dynasty has a particularly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hinese engraving. However, the number of survivors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is extremely limited, and it i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so it is difficult to focus on its regularity. Previous studies have few conclusive views. However, with the successive publication of early Northern Song Dynasty prints, especially single-cut Buddhist scriptures, we have more refer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edition, combined with documentary records, fully and appropriately clarified its engraving laws and academic value, and it has a certain degree feasibility.

Key Words : Northern Song Dynasty Engraved Edition, Edition study

